



윤석열, 한미 반도체 동맹 이해득실 놓고 난관에 봉착하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에 호응하며 한국 기업들의 지위를 더 높이려 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동맹' 등에도 참가했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곧 중국 시장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하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면,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한국 지배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들에 영업 기밀 공개와 초과 이익 공유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종용하고는,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놓아 사실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막아 버린 것이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었던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또다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 비용을 한국 같은 동맹국의 기업들에 떠넘기자, 전경련이 지배하는 <한국경제> 신문조차 사설에서 "반도체 문제에 관한 조 바이든 정부 행태는 한국의 '반도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대중의 엄청난 반발을 살 것이 뻔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급하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



해 장애물을 치워 주는 대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조치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뒤통수

실제로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정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를 일부 풀어 줬다.

그 후, 삼성의 이재용과 SK의 최태원은 모두 중국으로 달려가 중국 지배자들과 만났다. 그들과 같은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4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 당국과 만나 미국의 투자 규제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포기하기 힘든 큰 시장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보조금 지급 조건은 완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기업들에 더 세세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해 한국 기업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

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4월 한미정상회담 전에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했을 텐데 말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됐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려는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갈등이 격화되는 요인이 됐을 듯하다.

결국 윤석열은 3월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지배자들의 소망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심화될 미·중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둘러싸고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기업주들의 불만이 더 커지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지배자들간 내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키울 것이다. 이를 이용해 윤석열 반대 투쟁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딸”들의 보수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개딸”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들과 결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개딸”들을 ‘비민주적’, ‘팬덤 정치’, ‘홍위병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라고 비난한다. 주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개딸”들은 윤석열 정부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민주당에 개혁 입법 실천을 강하게 요구한다. 보수파들이 일부 과도한 행태를 침소봉대하며 “개딸”을 문제 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혁 염원 자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그들에게 “개딸”은 일종의 코드명인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 보수파 비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재명에게도 불만을 토로했다. 보수파와 타협해선 안 된다는 올바른 요구이다.

이들은 민주당 친문계와 일부 보수적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부른다. 수박이 겉은 녹색인데 속은 빨간 것(국민의힘이 사용하는 색)에 빗대, 민주당 내 보수파를 비난하는 것이다.

이런 언행들에서 진보 성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환멸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개딸”과 결별하라는 다양한 보수파들의 압박은 안보·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대중의 개혁 염원보다는 지배계급의 위기 탈출 의제에 더 충실하라는 압박인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서방(미·일) 제국주의 지원 노선과 노동시간 연장 개약을 동시에 밀어붙이려다가 역풍을 맞았다.



기업주들은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대중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의 한일 협력 결단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보답이 실통찮다. 미국의 반도체법,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발표와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방침 등.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회담의 한국 측 책임자인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성한이 경질됐다. 윤석열의 50년 지기이자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불렸던 김성한의 경질은 정권 핵심부의 난맥상을 드러낸다.

코드명

정치 위기와 정치 양극화 때문에 총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주류 정치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바로 이런 위기를 배경으로 이재명에

게 “개딸”을 단속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경쟁을 국회 내 말다툼으로 제한하고, 경제·외교·안보에선 초당적 협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압박에 대한 이재명의 대응은 소심하게도 좌우로 양팔 벌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철회 장외 집회를 좌파 정당들과 3주 연속 공동 개최했다. 3월 27일에는 긴축 기조에 어긋나는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동시에, 이재명은 보수파의 압박도 수용하고 있다. “개딸”들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해 밀려났던 친문계들을 포함시켰다.

개혁파의 지지도 붙잡고 보수파와도 타협하며 시간을 벌며 내년 총선에서

이력저력 이기면 다음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는 실용주의의 발로다.

그러나 새로운 통합 지도부는 이재명에게 지배계급의 의제에 충실하라는 압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도부 개편 후 당내 보수파는 총선 공천권도 내놓으라고 한다. “개딸”과도 아예 “헤어질 결심”을 하라고 한다.

보수적 압박에 대한 이재명의 양보·후퇴는 보수·우파들의 기만 살리는 셈이다. 반면 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본인에게도 불리하다. 이재명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당과 일체가 되다가 패배한 자신의 대선 운동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뱅크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4월 5일(수)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405-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